진보도 보수도 '국화 한송이'

노 前 대통령 애도 행렬 … 300개 단체 '광주·전남 추모위' 결성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사흘째인 25일 광주에서는 노 전 대통령 추모를 위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전남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가 꾸려졌다. 진보와 보수, 종교, 노동, 학계 등 광주가 모처럼 뜻을 한데 모은 것이다.

위원장은 송기숙 전 전남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추모 리본 달기 운동과 시민 분향 참여 유도, 시민추모제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추모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물론 민주당사와 사찰, 다중 집합장소 등 광주·전남지역 20여곳에 분향소가 마련돼 추모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종교, 노동, 학계, 여성 등 광주·전남 시민사회 300개 단체로 구성된 '추모위원회'는 이날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전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양심인들에게 충격을 안겨 줬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추모위원회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퇴임 후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썼다"며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은 여지 없이 그 기대마저 깨트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25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전남 추모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에서 조영임 추모위원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추모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추진위원회는 또 "슬픔과 미움, 원망스러운 가슴 한 켠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우는 마음으로 추모위원회를 결성, 시·도민들과 함께 추모의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라며 "우리 모두 추모 리본을 패용하고 분향에 참여하는 한편, 시민추모제(28일)에 참여해 고인의 넋을 기리고 영면(永眠)을 기원하자"고 제안했다.

추모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자진 해산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광주·전남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온 종일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國民葬)으로 확정되자 광주시와 북구, 전남도 등은 이날 청사 내에 분향소를 각각 마련했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활동을 성공리에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시청 1층 시민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도청 1층 윤선도홀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실·국장들과 합동 분향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마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운영 분향소는 광주 8곳, 전남 15곳으로 파악됐으며, 조문객은 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김희성(26·광산구 소촌동)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너무나 허망하게 가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 나왔다"며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인간 노무현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분향소

광주	광주시청, 북구청, 남구청, 민주당 시당, 민주당 도당, 구 전남도청, 원각사, 문빈정사
전남	전남도청, 백양사(장성), 화엄사(구례), 선암사(순천), 송광사(순천), 대흥사(해남), 여수 문화의 거리, 순천 조은프라자 앞, 나주 구 소방서 앞, 나주 남외동 민주당사, 곡성군청 앞, 목포역 광장, 영광 민주당사, 장성군청앞 이낙연 국회의원 사무실

"마지막 가시는데 가슴 아파서…"

옛 도청 분향소 국화·리본·음료수·떡 등 후원 물품 '밀물'

지난 23일 옛 전남도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마련하려던 노사모 회원과 시민들에게 한 50대 여성이 "분향소 제단을 흰 국화로 장식해 주세요. 마지막 가시는데 가슴이 아파서…"라며 2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사라졌다.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시민들은 당초 합판으로 틀을 짜고 그 위에 흰 광목만 씌워 조촐하게 제단을 만들어 추모객을 맞으려고 했으나, 이날 밤 10시께 이 곳을 지나던 여성이 국화가 없는 것을 보고 선뜻 돈을 건넨 것이다.

옛 전남도청 분향소에는 끊이지 않는 추모객의 발걸음만큼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품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한 장례업체가 검은색 근조 리본 150개를, 생수업체는 20개 들이 생수 10박스, 꽃집에서는 국화 100송이를 보냈다. 방앗간에서는 추모객에게 나눠주라며 떡 2박스를 가져왔다.

25일에도 근조 리본 100개와 생수, 국화 100송이, 음료수 10여 박스, 떡 2박스 등이 전달됐다.

한 문구업체는 26일 방명록 20권을 보내기로 했으며, 국화를 배달하는 업체들은 원가만 받고 있다.

노사모의 한 회원은 "추모객들이 어떻게든 '우리도 십시일반하고 싶다'고 해 모금함을 만들기도 했다"며 "지갑에 있는 천원 짜리 까지 남김없이 모금함에 넣는 추모객이나 각종 물품 후원이 잇따르는 것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을 보내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순 60대 노인 피살

능주면 주택서, 온 몸 멍자국…연쇄살인 가능성

화순의 한 주택에서 60대 노인이 피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마을 일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은 2년 전 80대 노인 피살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25일 화순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최모(여·67)씨의 사체에 대해 부검을 의뢰한 결과, 최씨는 직접적인 사인이 될 만한 상처는 없으나 온 몸에 멍든 자국이 있고 이에 따른 충격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다.

최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 화순군 능주면 남성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다. 경찰은 당시 하의가 벗겨져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살해된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7년 1월 7일 오후 3시35분께엔 화순군 능주면 모 벽돌공장 내 주택에 살던 김모(여·81)씨가 양손과 발목이 나일론 끈에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상·하의가 벗겨진 상태였으며 목 졸린 흔적도 발견됐다. 최씨와 김씨의 집은 직선거리로 1㎞ 안팎이다.

경찰은 범행시기와 수법 등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연쇄살인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공중보건의 등 750명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광산경찰, 알선자 검거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공중보건의사 등 성구매 남성 수백명과 성매매를 알선한 실제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광산경찰은 25일 시각장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41·광주시 북구 동림동)씨를 성매매 알선 등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4회 이상 성매매를 한 성구매 남성 39명과 성매매 여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성구매 남성 750여명의 매출전표를 확보했으며, 성구매 남성 가운데 공중보건의사(김모씨·30)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S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2천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4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채모(27)씨가 훔친 친구의 신용카드로 성매매 결재를 하는 바람에 절도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가정불화 … 화재 사고 잇따라

동거녀와 성격차이로 불화를 겪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가정불화에 따른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4일 밤 10시48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사는 김모(49)씨의 단층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김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불에 타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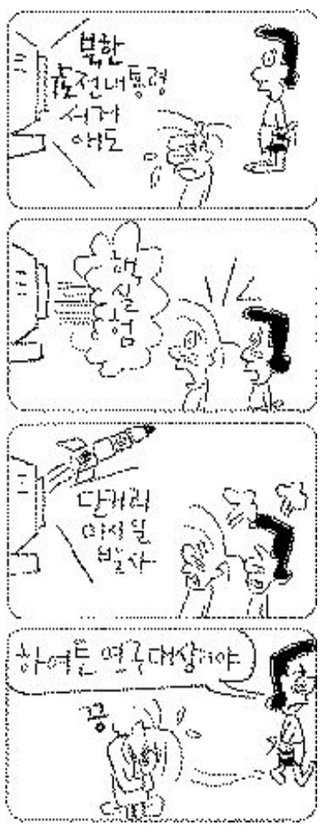
경찰은 김씨가 최근 동거녀와 성격차이로 불화를 겪으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는 지인들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불을 질러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에는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원룸 1층에 사는 양모(여·34)씨의 집에서 불이나 양씨의 전 남편 최모(40)씨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최씨는 경찰에서 "이혼했던 부인과 4개월 전 재결합했는데, 부인이 다시 집을 나간 뒤 함께 살던 원룸을 처분하려고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7812〉 김종두



대출 사례금 60대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25일 대출 알선을 미끼로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광주지역 모 저축은행 상근감사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7년 7월께 12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부동산업자 B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챙긴 혐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노 前 대통령 따라…" 50대 자살기도

쌍나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50대 남성이 자살을 기도하려 했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무사히 구조.

○…광양경찰에 따르면 신모(55)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45분께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의 한 저수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죽어 버리겠다"며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는 것.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신씨의 위치를 파악한 뒤 순찰차 3대를 현장에 보내 신씨의 자살 기도를 제지.

○…신씨는 봉강저수지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